

인구 매년 2500명씩 감소... 여수시, 거주민 지원 강화

1998년 '3려 통합' 때보다 6만명 줄어... 인구 유출 대응책 고심 청년·출산 가정 주거·양육비 지원... 1인 가구 맞춤 돌봄 서비스

여수시가 생활 체감형 지원 등 인구 감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여수 인구는 26만7천338명으로 1998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려 통합' 당시 33만여명에 비해 6만명 이상 줄었다.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에도 연평균 2500명이 감소했다.

여수시는 인구 정책 방향을 유출 방지에 두고, 전입자보다 실제 거주하는 시민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조로 전환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도 3월 중 모집한다. 지역에 거주 또는 전입 예정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이다.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모처럼 6.1% 증가한 출생아 수를 더 늘리고자 출산·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며 오는 8월 중에는 공공 산후조리원도 개원한다.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애주기별 세심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1인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연령, 혼인 여부, 소득수준 등을 기반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전체 인구는 감소했지만, 세대수 및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60세 이상 1인 가구는 2만 5752명(48.3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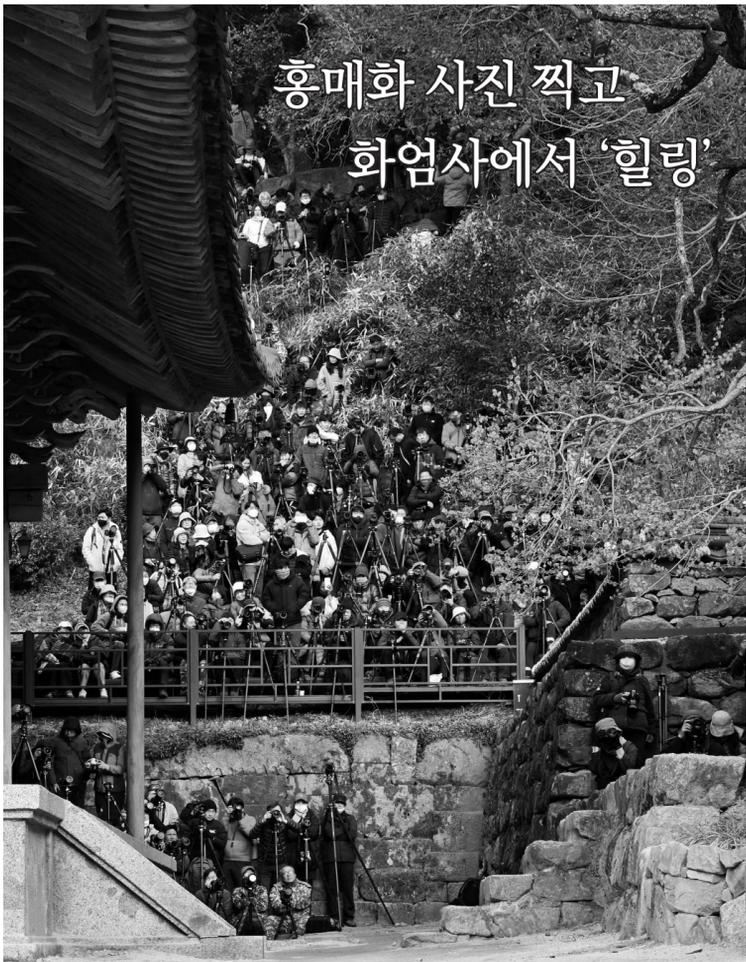
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 돌봄 지원으로 '어르신지킴이단 운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노노케어(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인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과 '찾아가는 맞춤형 방렴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안심택배함'과 '여성안심콜센터', '여성안심귀갓길조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적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청년인구 증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홍매화 사진 찍고 화엄사에서 '힐링'

지난해 열린 홍매화·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사진 대회.

3월 10일부터 21일간 사진대회
전문가·휴대폰 카메라 2개 부문
4월 21일 최종 수상자 발표

구례 화엄사(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의 홍매화·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사진 대회가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간 열린다.

'화엄! 홍매화의 향기를 머금고~'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홍매화를 보면서 삶의 피로를 털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출품 사진은 화엄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홍매화 콘테스트 창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되며, 사진은 개인 당 2장으로 제한한다. 드론 촬영은 관람객의 안전과 국가유산을 보호를 위해 1주일 전 화엄사 종무실에 꼭 신청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회는 프로 전문가부문과 휴대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뉘고, 출품은 올해 촬영한 홍매화·들매화 작품이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작품성(30점)·활용성(30점)·적합성(20점)·독창성(20점) 등 100

점 만점으로 한다. 동점일 땐 작품성·활용성 순으로 고득점자 순위로 선정하고, 단 모두 동일한 점수일 경우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대회 출품작 및 수상작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귀속된다. 출품작 및 수상작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화엄사 및 구례군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최종 심사결과는 4월 21일(오전 9시) 화엄사 홈페이지와 BBS 블로그방송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에서 발표하며, 시상식은 부처님오신 날(5월 5일) 오전 10시 각황전에서 갖는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지난 2021년부터 개최한 홍매화·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사진 콘테스트는 사람이 국민들의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하기위해 개최하게 됐다"면서 "홍매화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속에 향기로운 꽃이 있는가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매화 사진대회 개최식은 3월 22일 오후 1시 30분 각황전 앞마당에서 열리며, 당일 시인 현중순의 작품 '홍매화' 시 낭독 제막식도 갖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의 즐거움

광양시, 26일까지 15개 가정 선착순 모집...연주·돌봄·일손돕기 등

광양시 가족센터가 오는 26일까지 제17기 가족봉사단을 모집한다.

제17기 가족봉사단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일 1회 약기연주, 재능기부, 돌봄, 탄소중립 실천, 농촌일손돕기 등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모집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월 1회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2인 이상 가족이다. 선착순으로 15개 가정을 모집하며 광양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가입해야 하며, 참여자는 자원봉사시간 인증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가족센터(061-797-6895)로 하면 된다.

손경화 광양시가족센터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일상 속 나눔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가족봉사단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시가족센터는 2009년 가족봉사단 운영을 시작하여 다채로운 활동으로 가족의 성장과 화합,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장흥 국가어항 회진항 정비 시작 소형선 부두 정비 등 2029년 완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장흥군에 위치한 국가 어항인 회진항 정비공사를 착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회진항은 2014년 기본시설 완공 이후 기후 변화 및 태풍 내습 시 해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해 어항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해수청은 이에 따라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9년까지 어항 기본 시설 정비 연약지반 개량 등을 추진한다.

소형선 부두 정비 508m, 선양장 신설 30m 등을 갖춰 안전성을 높이고 어항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변민준 여수청 어항건설과장은 "여수해수청은 회진항 정비 공사 시행으로 안전한 어항 구축 및 어업 여건 개선과 더불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국가어항 회진항 정비 공사 조감도.

고흥군,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전국 5위

지역경제대상 우수상...공공요금 동결·소비자 보호 조례 등 호평

고흥군이 지난 18일 '2024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지방물가·소비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이 공동으로 주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운영된 지역경제의 성과를 공표된 공식 통계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8개 부문별로 평가하고 발표한다.

이번 평가에서 고흥군은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소비자 보호 조례 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받아 지방물가·소비자 부문에서 높은 순위에 기록했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군 단위 평가에서 5위를 기록하며, 고흥군의 경제정책이 전국적으로

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고흥군은 생필품·농수산물 가격 모니터링 강화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이벤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운영,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 물가 안정 릴레이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수수료 0% '곡성물' 입점업체 찾아요

다음달 7일까지 모집...농업인·생산자 단체 등 대상

곡성군의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물'이 내달 7일까지 입점업체를 모집한다.

'곡성물'은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는 쇼핑몰이다.

입점 신청 대상은 농업인·생산자 단체·가공식품 제조업체 등으로, 입점이 가능한 지역 자원을 보유한 개인과 소규모 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및 읍·면사무소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통양정팀(061-360-

83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물에 입점하면 판매 수수료가 0%이다. 이는 입점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올해 신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곡성물은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온라인 광고비 지원을 통해 입점 업체가 자사의 제품을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온라인 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10월 개장한 곡성물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곡성물을 통해 직거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곡성군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인식과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곡성군의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곡성물에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

경로당 서비스 개선 논의

대한노인회보성군지회, 실무 회의

대한노인회보성군지회가 지난 14일 보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프로그램 지원기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는 지역 내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10개 기관의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특정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집중되거나 중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신규 프로그램 도입 및 기존 프로그램 개선 방안, 기관 간 협력 방안, 실무자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열린 토론이 진행됐다.

대한노인회보성군지회허광영 사무국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경로당 프로그램의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는 보성군으로부터 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노후화된 지회 건물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